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 현안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PART 2

국정 현안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PART 2

조사내용

성별, 연령, 지역

정당 이미지 평가 및 최근 경제 이슈

정당 이미지 - 국민의힘

정당 이미지 -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 힘, 대통령의 의중

정당 측면별 평가

최근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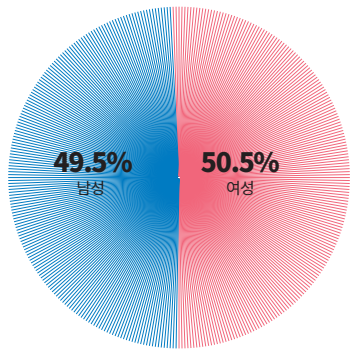
별첨자료 - 대통령 이미지 평가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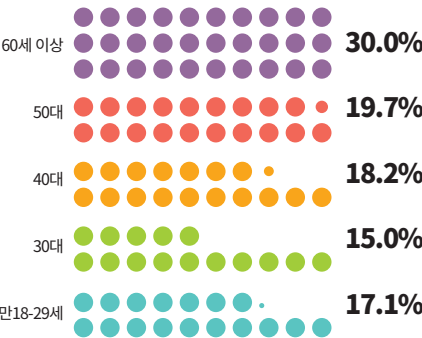
조사방법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 여론조사
모집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151명
표집방법	2022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오차	±2.9%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63.0% [온라인 가입 패널 중 24,282명에 발송] [총 1,826명 연결, 중도이탈 675명, 완료응답 1,151명]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6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조사기간	2022년 07월 14~15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151	100.0%	1151	100.0%	1.00
성별	남성	593	51.5	570	49.5	0.96	
	여성	558	48.5	581	50.5	1.04	
연령	만18-29세	195	16.9	197	17.1	1.01	
	30대	188	16.3	173	15.0	0.92	
	40대	239	20.8	209	18.2	0.87	
	50대	235	20.4	227	19.7	0.97	
	60세 이상	294	25.5	345	30.0	1.17	
지역	서울	218	18.9	218	18.9	1.00	
	인천·경기	358	31.1	365	31.7	1.02	
	대전·세종·충청	133	11.6	125	10.9	0.94	
	광주·전라	111	9.6	109	9.5	0.98	
	대구·경북	111	9.6	113	9.8	1.02	
	부산·울산·경남	171	14.9	173	15.0	1.01	
	강원·제주	49	4.3	48	4.2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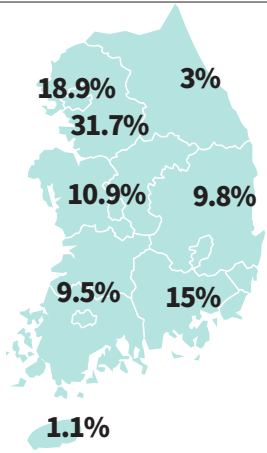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계표의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부 분석은 개별 응답 사례수의 오차범위를 측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당 이미지

국민의힘

Q. ‘국민의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爭

다툼 쟁

권력투쟁, 다툼, 분란 내분, 내홍
자증지란, 오합지졸

沓

겹칠 답

답답함, 노답
한심, 지지부진
고인물, 고구마

腐

썩을 부

부정부패, 부패의 온상
쓰레기, 썩은, 매국노

慢

거만할 만

오만불손, 독불장군, 독선
불통, 여론무시, 안하무인

望

바랄 망

총선에서 뒤집길, 잘될 것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길
경제/공정개혁

舊

옛 구

구태의연, 구시대 정치
과거로 회귀, 도로박, 꼰대

驕

교만할 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적, 국민의집

亂

어지러울 란

아사리판, 엉망진창, 좌충우돌
중구난방, 지리멸렬

無

없을 무

무능, 무식, 무지, 무정부
바보들, 멍청한, 병신



정당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Q. '더불어민주당'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愚

어리석을 우

한심한, 무능, 무식, 존재감
모지리, 바보, 멍청이

沓

겹칠 답

답답함, 노답
지지부진, 고인물

慢

거만할 만

오만불손, 독불장군
불통, 여론무시

非

아닐 비

내로남불

能

능할 능

유능한 인재가 많음
일을 잘함, 스마트함

汰

걸러낼 태

혁신과 개혁,
쇄신과 정비 필요
분발해야

同

한가지 동

유유상종, 도찌개찌,
그 나물 그 밥, 그놈이 그놈

亂

어지러울 란

아사리판, 엉망진창, 좌충우돌
중구난방, 지리멸렬

卒

군사 졸

오합지졸, 분열, 사분오열
불협화음, 자중지란

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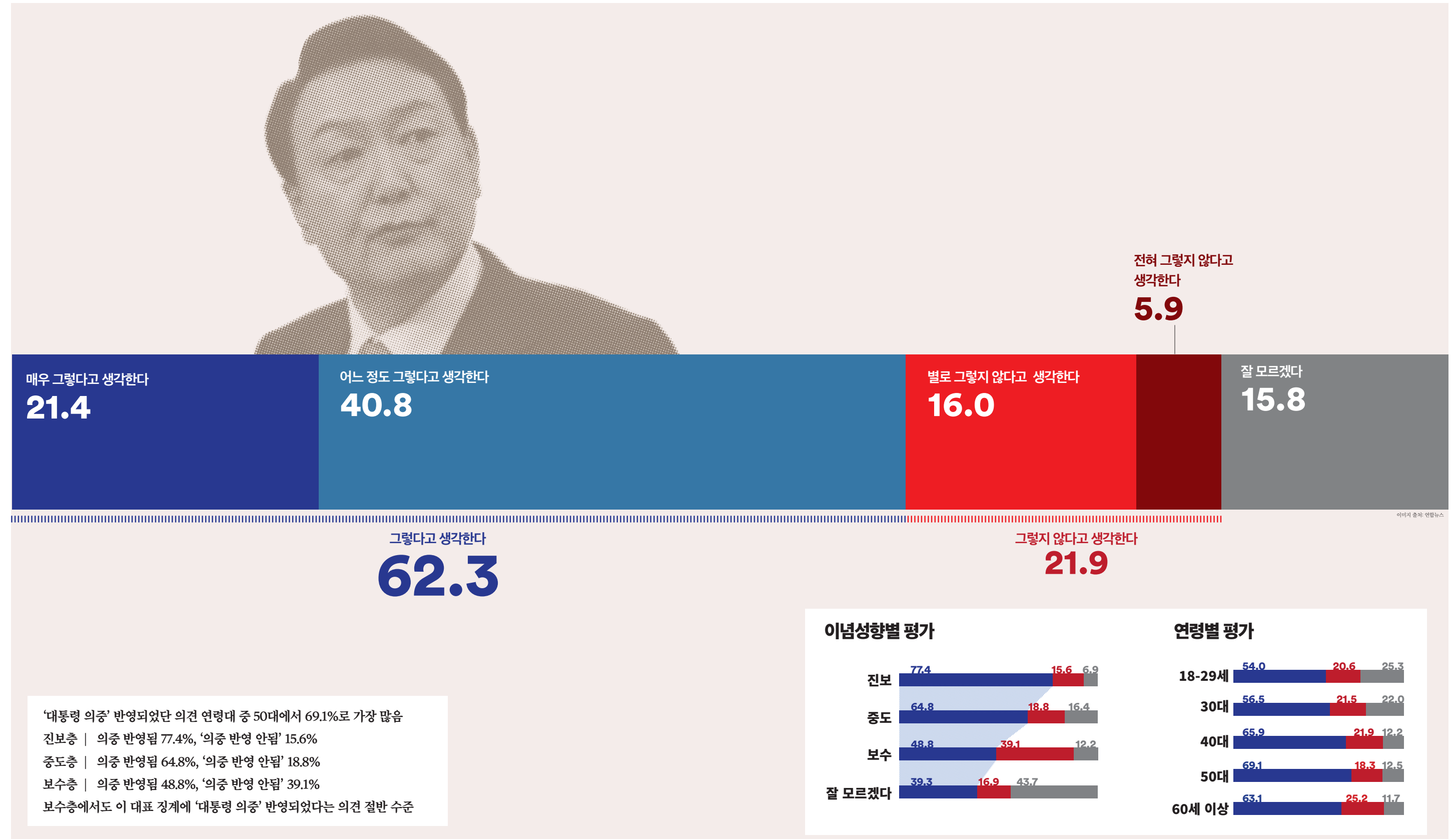
부끄러울 치

후안무치, 뻔뻔함, 비열함
비양심, 적반하장, 무반성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대통령의 의중

이준석 대표 윤리위 결정에 대통령 의중 반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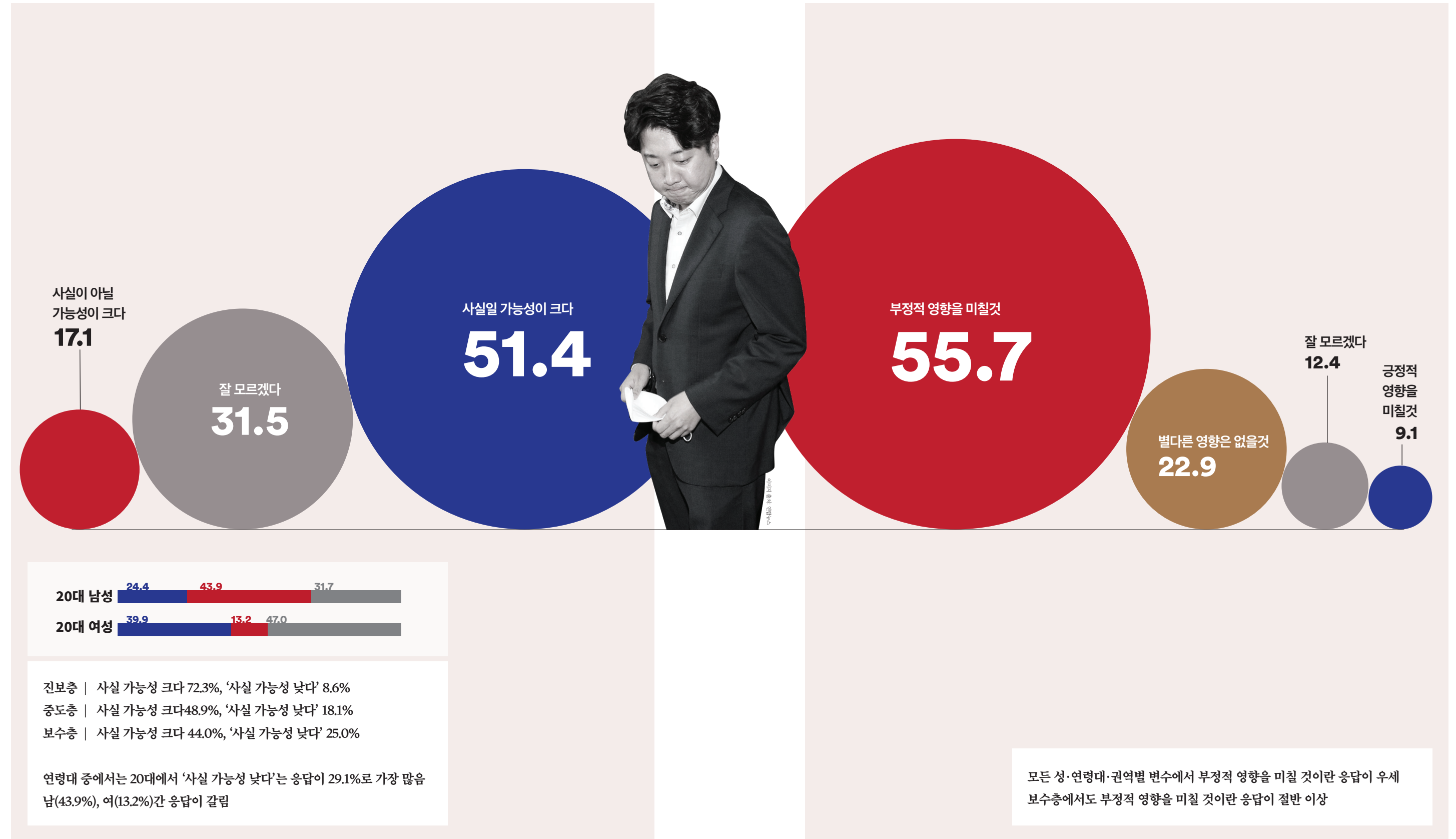
Q.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준석 당 대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대통령의 의중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사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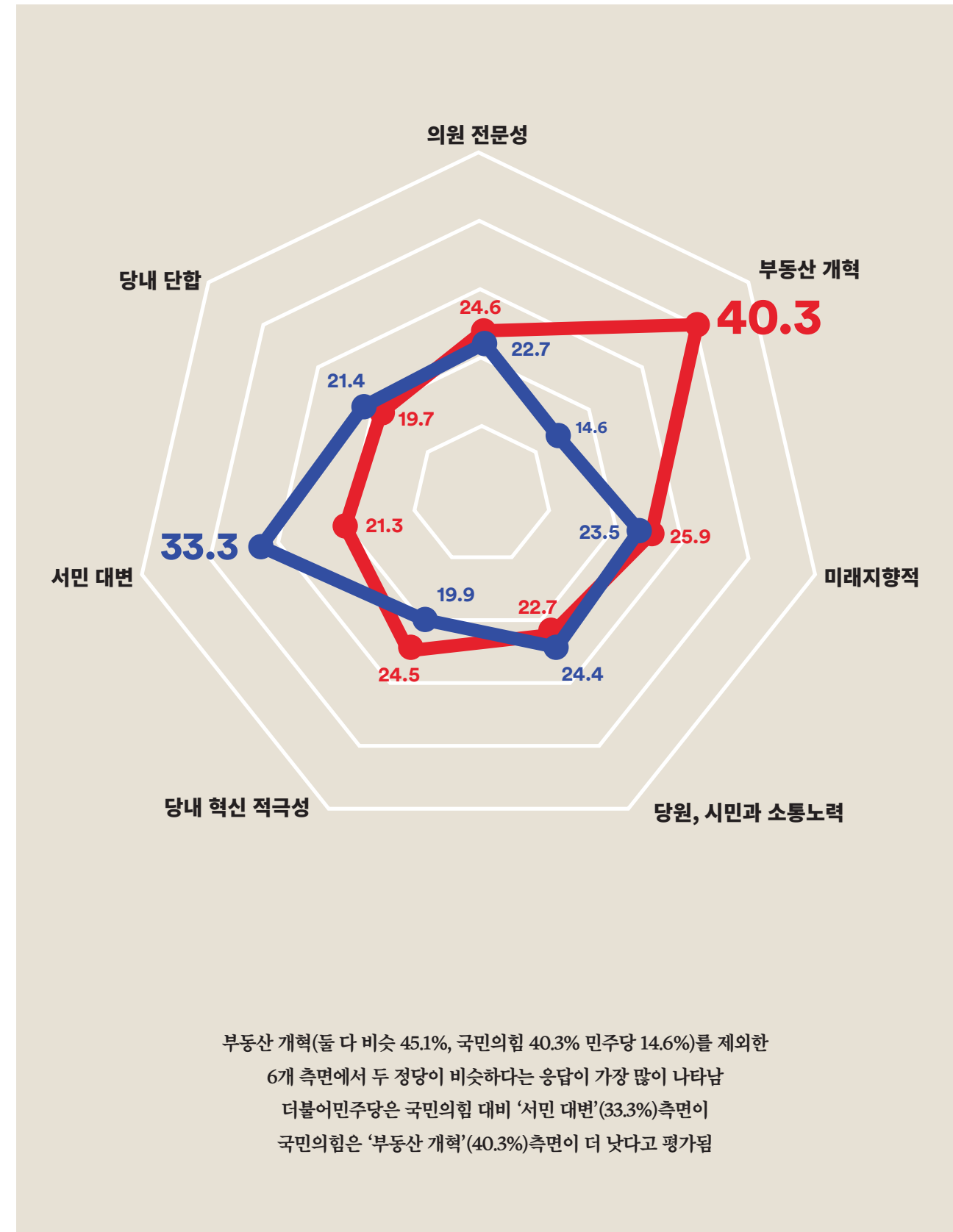
Q. 귀하께서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사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측면별 상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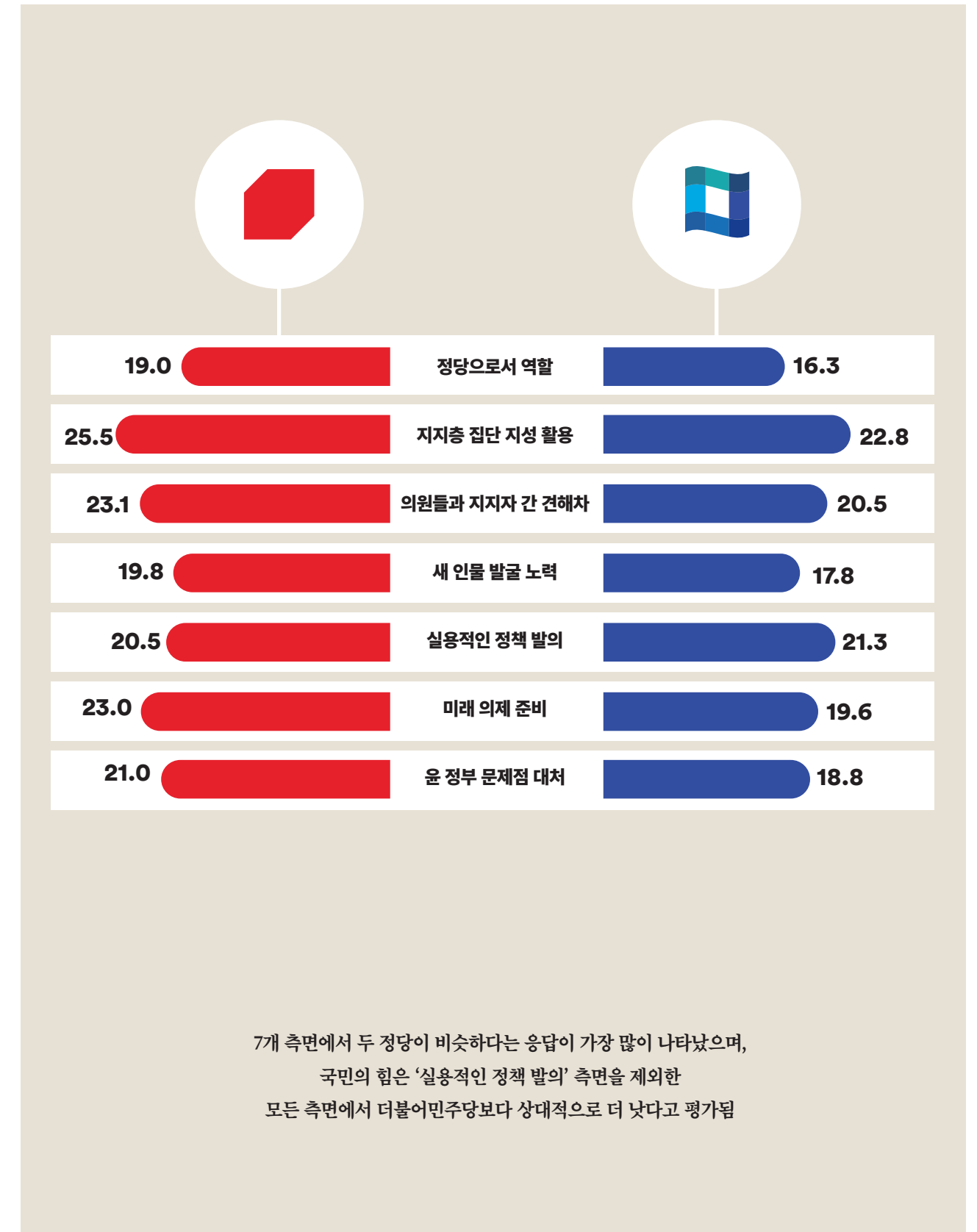
Q. 다음 보여드리는 항목에 대해 어느 정당이 더 낫다고 혹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측면별 절대평가

Q. 다음 보여드리는 항목에 대해 어느 정당이 더 낫다고 혹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측면별 평가 분석

평가 내용 회귀 분석

Q. 각 요소와 정당으로서의 역할 수행 평가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보수	중도	진보
 <div>정당으로서 역할 수행 평가</div>	지지층의 집단 지성 활용	.143	.208	.172	
	의원들과 지지자간 견해 차이	.149	.209	.138	.201
	새 인물 발굴 노력				.240
	실용적인 정책 제시	.247		.243	.382
	미래 의제 준비	.185	.147	.174	.231
	윤 정부 국정운영 보조	.149	.283	.163	
		전체 (n=1,157) <i>R</i> =.707, <i>R</i> ² =.500, <i>Adjusted R</i> ² =.497, <i>F</i> =190.475 (<i>p</i> =.000)	보수 (n=205) <i>R</i> =.646, <i>R</i> ² =.418, <i>Adjusted R</i> ² =.400, <i>F</i> =23.678 (<i>p</i> =.000)	중도 (n=644) <i>R</i> =.689, <i>R</i> ² =.475, <i>Adjusted R</i> ² =.470, <i>F</i> =95.866 (<i>p</i> =.000)	진보 (n=214) <i>R</i> =.775, <i>R</i> ² =.601, <i>Adjusted R</i> ² =.589, <i>F</i> =51.912 (<i>p</i> =.000)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로, 제시된 수치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비표준화계수 값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면별 평가 분석

평가 내용 회귀 분석

Q. 각 요소와 정당으로서의 역할 수행 평가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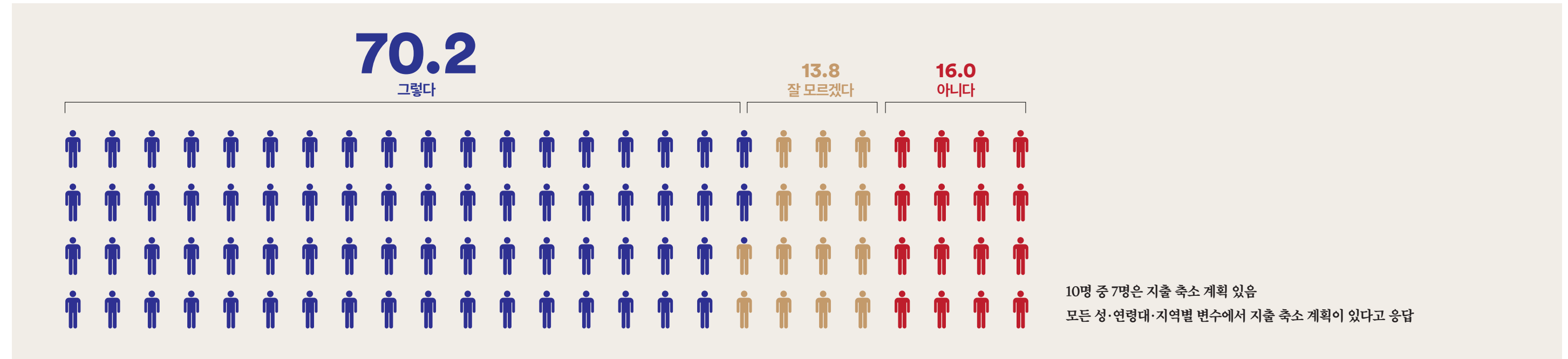
		전체	보수	중도	진보
<div>  <div> <div>정당으로서 역할 수행 평가</div> <div> <div>지지층의 집단 지성 활용</div> <div>의원들과 지지자간 견해 차이</div> <div>새 인물 발굴 노력</div> <div>실용적인 정책 제시</div> <div>미래 의제 준비</div> <div>윤 정부 문제점 적극대처</div> </div> </div> </div>				.134	.143
			.152		
		.178	.147	.188	.234
		.245	.415	.184	.278
		.193		.206	.139
		전체 (n=1,157) <i>R</i> =.680, <i>R</i> ² =.462, <i>Adjusted R</i> ² =.459, <i>F</i> =163.620 (<i>p</i> =.000)	보수 (n=205) <i>R</i> =.717, <i>R</i> ² =.514, <i>Adjusted R</i> ² =.499, <i>F</i> =34.867 (<i>p</i> =.000)	중도 (n=644) <i>R</i> =.648, <i>R</i> ² =.419, <i>Adjusted R</i> ² =.414, <i>F</i> =76.682 (<i>p</i> =.000)	진보 (n=214) <i>R</i> =.665, <i>R</i> ² =.442, <i>Adjusted R</i> ² =.426, <i>F</i> =27.3132 (<i>p</i> =.000)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로, 제시된 수치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비표준화계수 값입니다.

최근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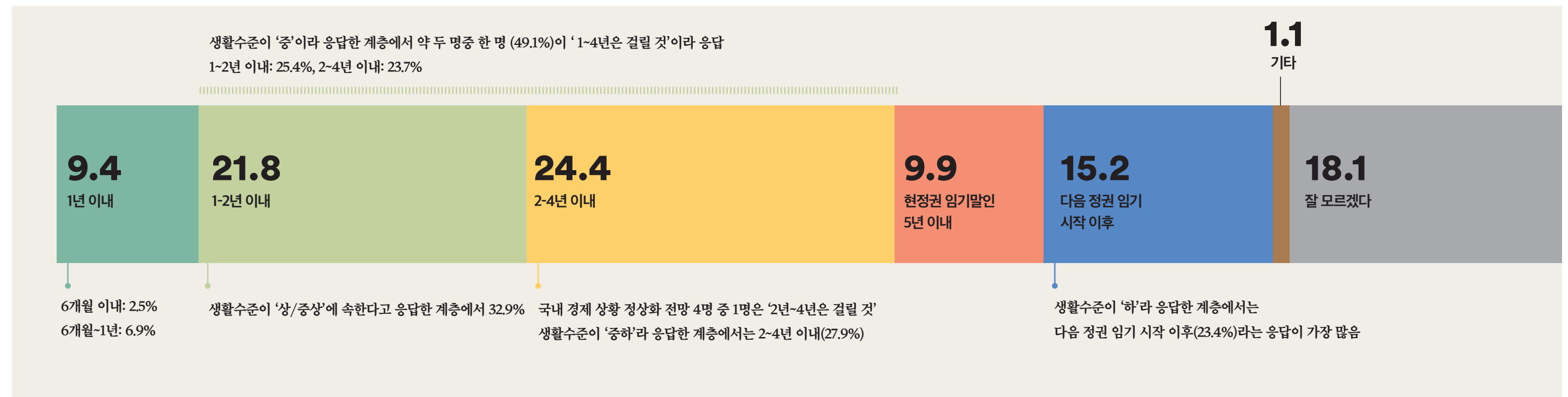
물가 상승 대비 가정 내 지출 계획

Q. 물가 상승 등을 대비하기 위해
가정 내 생활비 지출을 줄일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내 경제 상황 정상화 예상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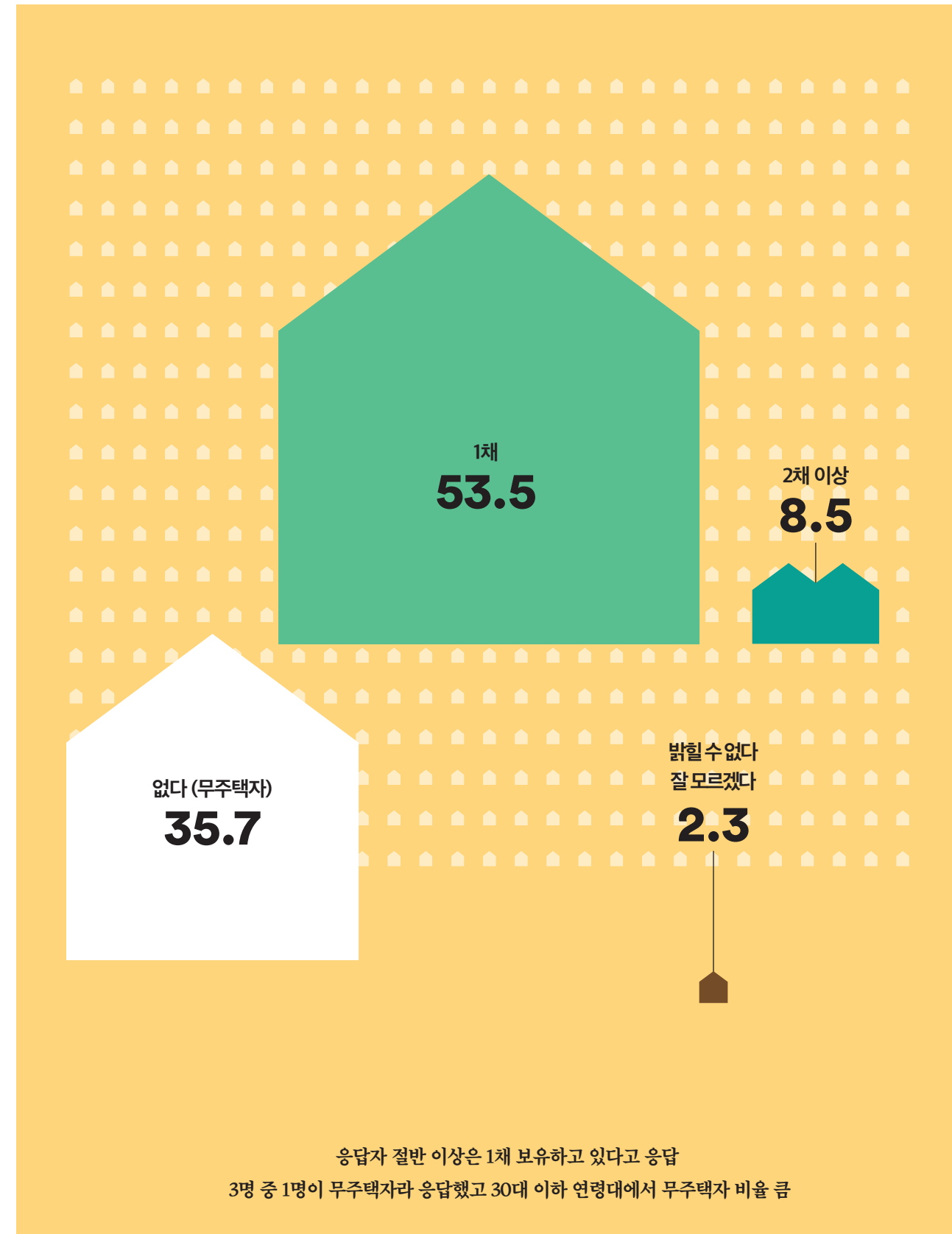
Q. 귀하께서 생각하실 때, 국내 경제 상황이 언제쯤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최근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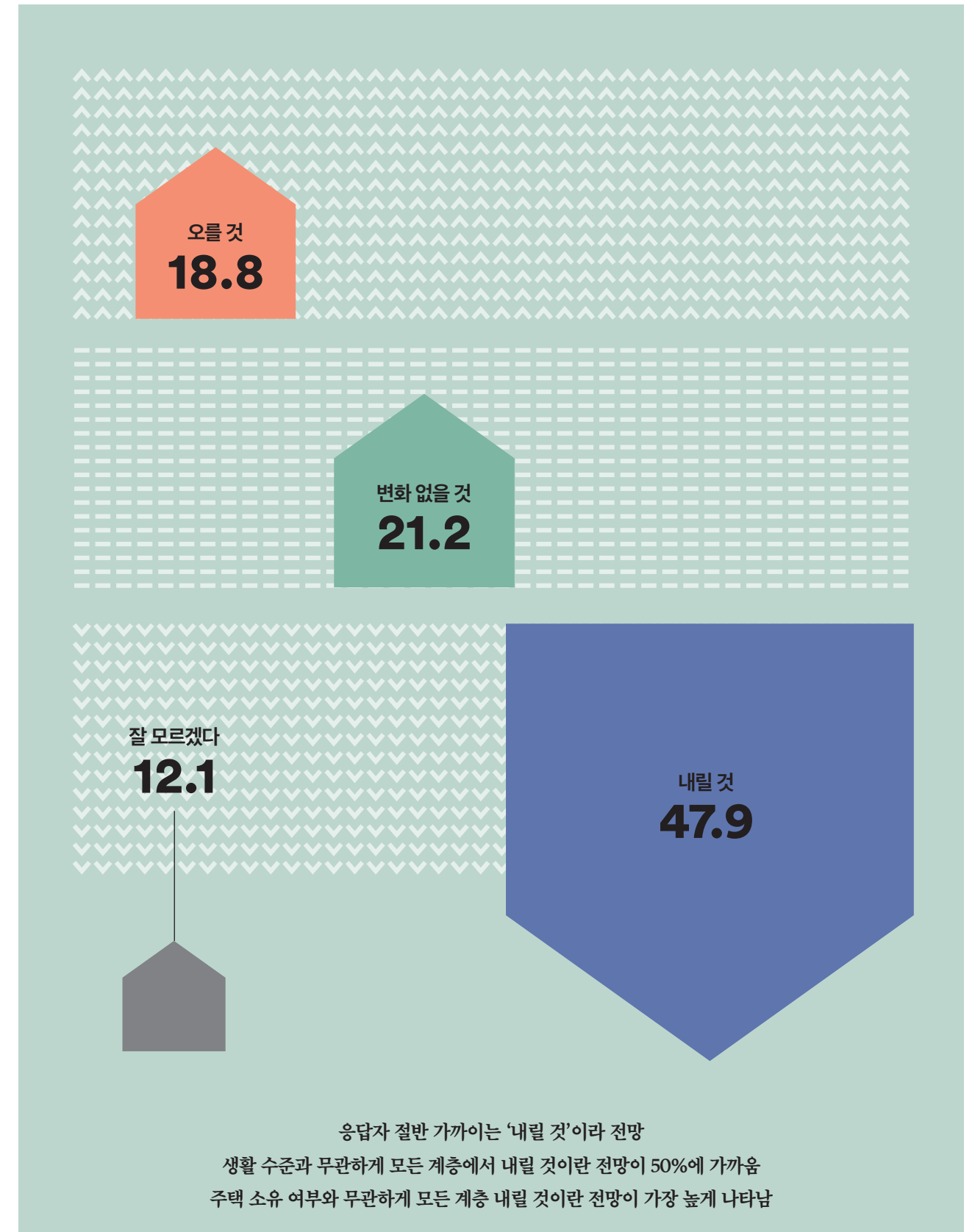
주택 소유 여부

Q.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면) 몇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향후 1년간 주택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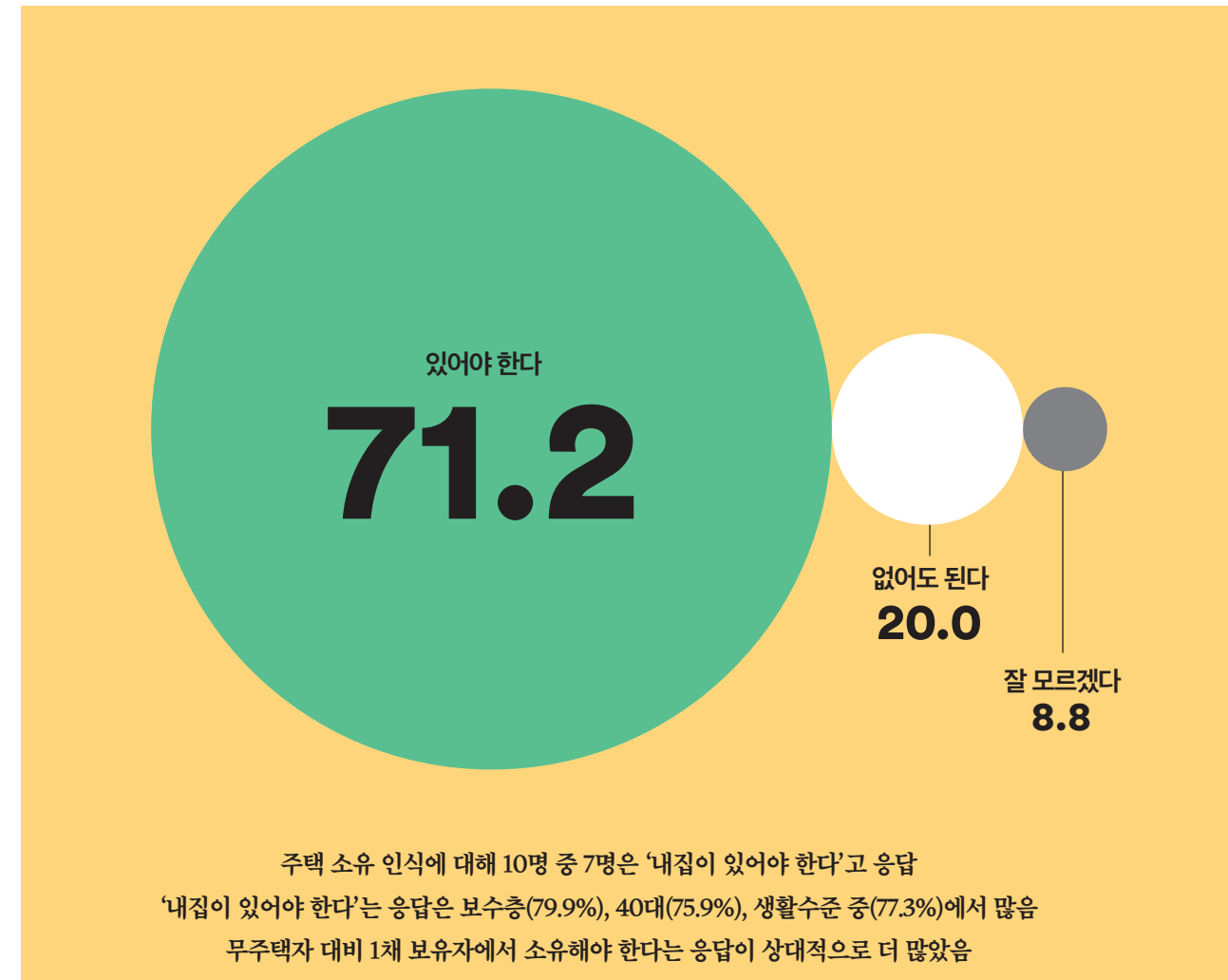
Q. 향후 1년간 집값에 대한 전망을 하신다면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최근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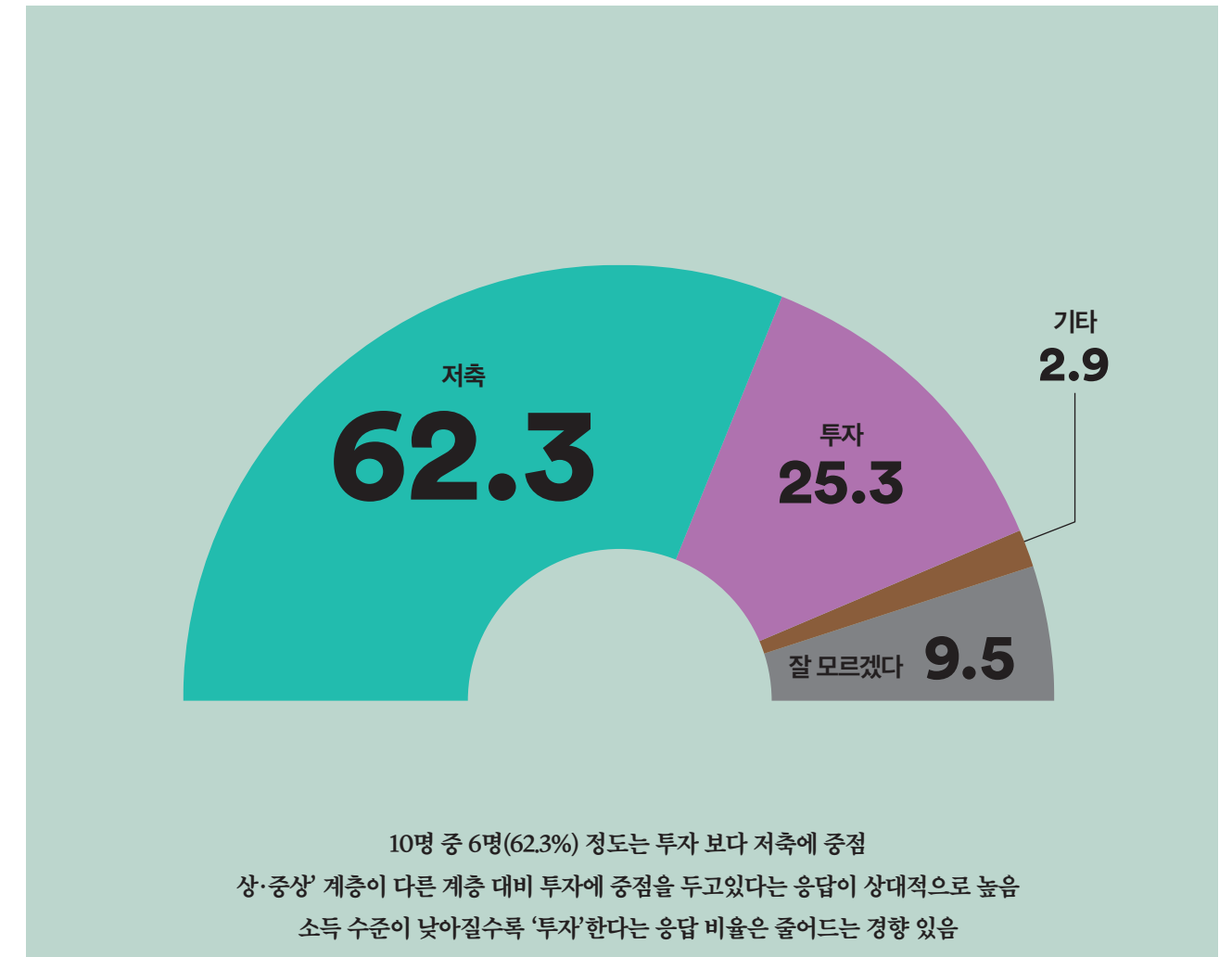
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

Q.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혹은 없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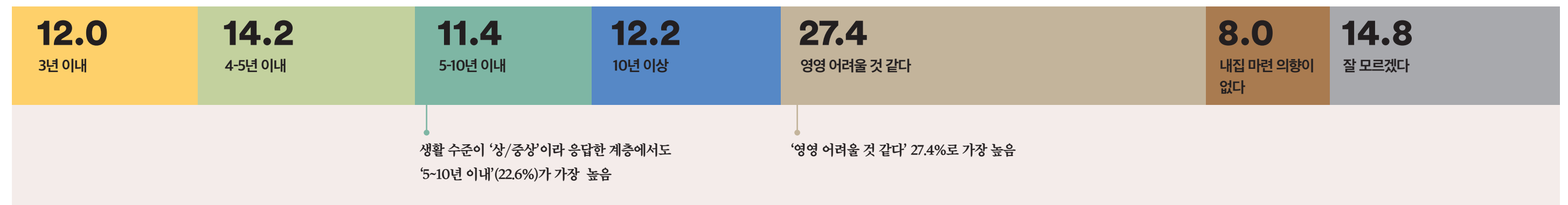
저축 VS. 투자 비중

Q. 현재 저축과 투자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무주택자)본인 주택 소유 예상 시기

Q. 향후 몇 년 이내에 본인 소유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첨자료 대통령 이미지 평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이미지

연상이미지 분석 단어 정리 1. 부정 내용 분석

연상이미지 분석 단어 정리 2. 긍정 내용 분석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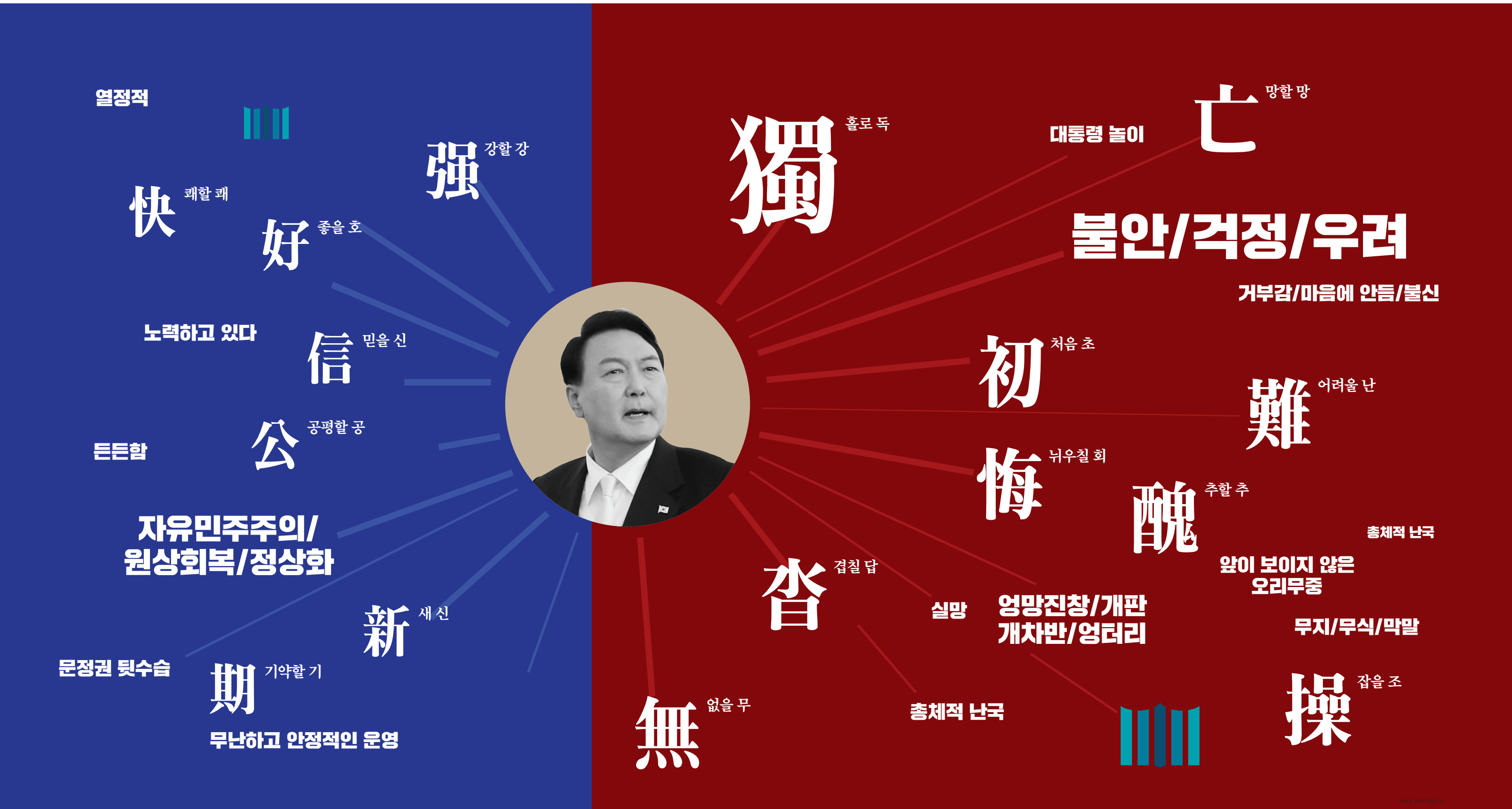
Q. 현재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Q. 현재 '윤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든 좋으니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연상이미지 분석 단어 정리 1. 부정 내용 분석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한 단어로 표현케 한 결과를 크게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류해 본 결과, 긍정(16.4%)보다 부정(68.7%)이 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보수층에서 조차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음



獨

홀로 독

독불장군

“독선(獨善)”, “전 정부에 트집만 잡고, 전 정부보다 더 잘하는 건 없는 독선적인 정치”

“독단(獨斷)”, “체계가 없고 어설픈고 독단적이다”

“독재(獨裁)”,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재현”

“고집불통(固執不通)”, “소귀에 경 읽기”

“막무가내(莫無可奈)”, “자기 맘대로 엉망진창에 국민은 신경 쓰지 않는”

“무데뽀(無鐵砲)”, “문재인 정부 욕하던 거 똑같이 답습하면서 초반 국정 운영을 눈치도 안보고 함”

“안하무인(眼下無人)”, “2030 세대와의 약속을 안 지키는 아주 안하무인 대통령”

“독불장군(獨不將軍)”, “우이독경(牛耳讀經)”, “일방통행(一方通行)”, “막가파”, “내로남불”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 재산을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자신의 사유재산인 양 처리하고 있다.”

“주변인물 위주인 검찰 조직과의 독단적인 행정 및 정책 추진이 가장 큰 문제”

無

없을 무

“무식(無識)”, “아주 무식하고 그 무식이 하늘을 찌르고

무식이 줄줄 흐릅니다”

“무능(無能)”, “우리나라가 50개국 부도 국가 예상반열에 들어섰다는

보도를 봤는데 무능한 정권에 분노심이 생긴다.”

“무지(無知)”, “경제, 외교, 안보, 상식, 시장 등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

“무개념”, “무정부”, “무책임”, “무원칙”, “구심점이 없어보인다”

“무능 그 자체”, “무능한 현실감각”, “무시”, “안하무인”, “못한다”, “못함”

“무정부 오합지졸”, “무원칙 무책임”, “무정부 무책임”

醜

추할 추

“뻔뻔함과 무능함의 콜라보!”

“뻔뻔함과 아마추어리즘의 극치~”

“억겨운 쓰레기들의 오합지졸”

“별로다”

무-무-무
추-추-추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初

처음 초

초보, 왕초보

“초보(初歩)”, “왕초보”, “경험부족”, “아마추어”, “미완성”, “시행착오”

“경험부족”, “미숙”, “미흡”, “미숙한”, “미숙하다”

“미숙하고 고집세고 답답하다”, 서투르다, 서투름, “아기 걸음마”, “아마추어들의 놀이터”

“아마추어스럽고 자기들만 배부르면 다인 듯 하다”, “아마추어의 왕놀이”, “어리버리”

“정치전반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머리속에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준 종이의 내용을 읽는 것 같다.”



憂

근심 우

...어떡하지?

“우려(憂慮)”, “불안(不安)”, “걱정된다”, “답답하다”, “답이 없다”,

“불안”, “불안정”, “불안하다”, “불안불안”

“좌불안석”,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걱정”, “근심”

“말실수가 많아 불안하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이 처럼 불안하다.”

難

어려울 난

“총체적 난국(難局)”, “오리무중(五里霧中)”, “안개 속에 서 있는 느낌이다”

“우왕좌왕(右往左往)”, “정신이 없이 따로 논다”

“중구난방(衆口難防)”, “중구난방식 국정 운영이다”

“좌충우돌(左衝右突)”, “생각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다”

“천방지축(天方地軸)”, “마스터플랜이 없어 천방지축”

“어영부영”, “주먹구구”, “얼렁뚱땅”, “애매모호”, “엉망진창”, “뒤죽박죽”

“줄속”, “개판”, “난맥”, “난장판”, “노답”

亡

망할 망

“망조(亡兆)”, “나라 망하기 직전인 것 같다”, “나라 망치기”

“멸망(滅亡)”, “국가 소멸”, “국가 부도”

“폭망”, “독선적이며 경제 외교에서 폭망 각이다”

“무정부 오합지졸들로 정부가 없는 나라가 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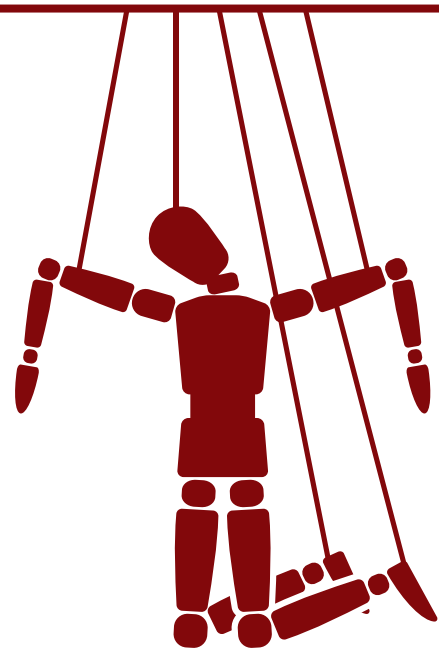
“파탄”, ‘도로박’, “나라가 개판”, “나라가 망할거 같다”, “나라를 후퇴시킬 것 같다”

“실망”, “망함”, “망했다”, “살얼음판”, “재앙”, “큰일났다”, “혼돈”, “혼란”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操
잡을 조

“조종(操縱)당하는 꼭두각시 정부”

“얼굴마담”, “당원들에게 휘둘리는 정치”

“비선과 무속신앙이 국정운영의 주체”

“대통령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가신 아닌 간신들에 둘러싸여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대통령”

“선장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 잡부들이 운전하는 함대”

“비선실세 김건희”

“아무것도 할 줄 아는게 없고 무속에 의지”



“검찰공화국”, “검찰 엘리트 정치”

“검찰 출신만 기용”, “검찰/지인 사유화 정부”

“검찰공화국 내에서 celebrity가 되고 싶은 부부의 공동 운영”

“엘리트만이 인정 받는 국가”, “왕 내시 봉당”, “윤핵관이 문제”, 칼잡이, 검찰우대

悔
뒤우칠 회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뚜렷하게 방향이 잡혀지지 않았다”

“요즘 국제경제엔 대책이 없다는 발언에 실망했다”

“믿음직스럽지 않다. 기대할수록 아니라는 것이 느껴진다”

“많은 유권자가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며 윤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는데,

요즘 실망스러운 일이 한 둘이 아니네요”

“앞으로가 더 걱정임… 왜 선거라도 다시 해야 심판받고 잘 하려나.. 다 갈아엎고 싶다”

“국민에 대한 배신, 뒤통수. 부끄럽다”

“에휴…”

沓
겹칠 답

“답답 그 자체임”,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답답하고 속이 터진다”

“할말을 한 번 생각하고 하셔라”

“고구마”, “노답”, “아수라장”, “영망진창”, “영망진창 개판”, “영망진창 시궁창”,

“영망진창 얼렁뚱땅”, “한심”, “한심 그자체”, “한심하다”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개차반, 개판, 거지꼴, 꼴통같은, 또라이
멍청, 멍청이, 멍청이 대잔치, 멍청하다
멍청한 듯, 미친짓
바보, 바보 독단 멍청이, 바보 대통령
바보 멍충이, 쓰레기
...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연상이미지 분석 문장들 - 60자 이상의 응답내용

1. 너무나 무능하고 측근 인물 수의계약 등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2. 검찰공화국에서 나타나듯 독선적이며 경제 외교에서 폭망 각이다.
3.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 재산을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자신의 사유재산인양 처리하고 있다.
4. 법과 원칙을 입으로만 떠들며 자신의 가족의 비리는 수사도 안 한다.
5. 우리나라가 50개국 부도 국가 예상반열에 들어섰다는 보도를 봤는데 무능한 정권에 분노심이 생긴다.
6. 코로나방역 등 하는 것을 보니 망국적인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국민 의견이나 생각보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고, 대통령과 다른 생각이나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독선과 아집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말만 믿는 편협한 사고도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본인 포함 많은 유권자가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며 윤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는데, 요즘 실망스러운 일이 한 둘이 아니네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자질이 부족함.

대통령으로서 갖춰야할 다양한 이념/ 사고/ 개인적 성향을 갖추지 못함.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음.

주변인물 위주인 검찰 조직과의 독단적인 행정 및 정책 추진이 가장 큰 문제.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 오로지 전 정권 타과 전 정권 수사에 전력투구하며,

현재의 경제위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과의 소통부재와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무식한 추진력에

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지 않고 외교력에서도 소통 부재다.

동네 조폭 같은 말과 몸짓, 그리고 운영을 보면

일반 국민이 봐도 아마추어 같은...

격이 찻티가 너무 난다.

거기에 여당도 톨마니처럼 움직이는 것이 가관이다.

그리고도 창피함을 모르니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어쩌다 당선되더니

직무역량을 위한 노력과 변화는

전혀 안 보이고 되도 않는 함량 미달에

비도덕적인 자들을 기용하는 등

대통령 놀이에 취해 있다는 느낌뿐이다.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른감 있지만 그 나물의 그밥.

정치인들은 어쩔 한결 같이 똑같다는 느낌, 지금은 좀 답답하고 국정 정치 경험이 없어 불안하다.

정치전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 있다. 전정부와 마찬가지로 주변과의 소통이 되는지 의문이다.

머릿속에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준 종이의 내용을 읽는 것 같다.

요즘 국제경제엔 대책이 없다는 발언에 실망했음.

우리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IMF도 극복한 민족이니 조그만 어렵더라도 참고,

위기를 국민들이 힘을 모아 같이 극복합시다라는 발언을 해야지 대통령이지요~.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연상이미지 분석 단어 정리 2. 긍정 내용 분석

强

강할 강

“추진력(推進力)”
 “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믿음이 간다.”
 “용감하고 추진력이 있고, 박력이 있다.”
 “(파워) 한다면 한다.”
 “(책임) 뺏은 말은 반드시 이뤄낸다.”
 “추진력”, “열정”, “과감성”
 “우직하니 국정운영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정립을 다시 하고 있다.”

確

굳을 확

“所信(소신)”
 “소신있게 운영한다”
 “소신껏 하는 사람”
 “소신정치 실천 중”
 “법과 원칙대로 소신 있게
 일을 잘 해서 믿음이 감”

新

새 신

“새로움”, “개혁적”, “새로운 정권”, “신선감”
 “정치 무경험의 약점에 반대로
 신선한 시도도 많아서 좋다”
 “새로운 정권이라 참신하다”

公

공평할 공

“공정(公正)과 상식(常識)”
 “공정, 정의, 평등의 실현”
 “공정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정”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快

쾌할 쾌

“통쾌(痛快)”
“정면돌파”, “좋다”, “좋은”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시원시원하게 자신감 있게 하시는 듯하다”
“시원함을 준다”
“스마트하다”

好

좋을 호

“선호(選好)”, “그냥 너무 좋다”
“호감(好感)”, “좋습니다”
“잘 하고 있다 힘내라!”
그리고 평가에 연연하지 마라~”

期

기약할 기

“기대감(期待感)”
“정상회귀”, “정상화”, “과도기”
“대기만성형 대통령”
“자유 헌법수호와 공정과 상식”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信

믿을 신

“믿음”, “소신정치”, “소신껏 운영”
“소신껏 하는 사람”, “소신껏 하는중”
“소신있게 정상화”, “정상회귀”, “소탈”
“솔직”, “솔직하다”, “자연스럽다”
“믿을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이미지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연상

연상이미지 분석 문장들 - 60자 이상의 응답내용

때로는 소신껏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강하면 부러지듯이
우선 민생을 살피셔서 출산을 꺼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서민들도 내 집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치 무경험이 약점이지만 반대로 신선한 시도도 많아서 좋다.
영부인을 관리하는 부서를 배치하여 일부여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를 바란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더 준비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믿음직한 대통령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지금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과학방역 한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고 다시 백신접종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백신패스 같은 엉터리 정책은 폐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말 바꾸는 행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현 민주당 및 민주당 지지 세력이
부정선거/ 문재인 정권 부패/ 비리 등을 덮기 위해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고 있지만,
우직하니 국정운영을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정립을 다시 하고 있다.

우직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 현안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PART 2



www.flowerresearch.com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